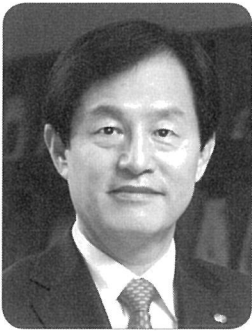




## “뉴 비전 달성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이재희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 한양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전 서울본부 부분부장, 남부지점 지점장, 서울본부 본부장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역임
-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14~)

친애하는 한전원자력연료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해를 보내고, 병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직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새롭고 힘찬 기상과 기운이 느껴지는 새해 아침입니다.

올 한해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건강한 가운데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제3공장 기공과 UAE 원자로에 공급할 핵연료를 생산해 왔으며, 정부 경영 평가 A 등급 획득, 임금 피크제 도입, 고유 코드와 방법론 개발, 우리의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열기 위한 비전 2030 신가치 체계를 수립하여 선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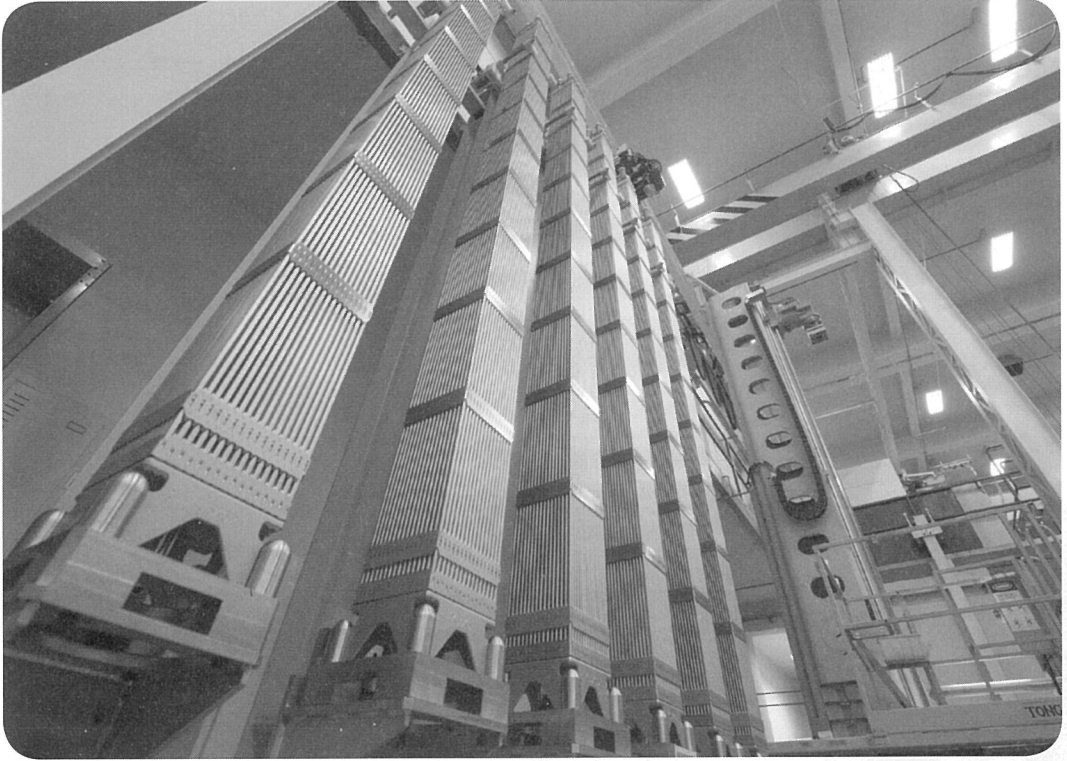
새로운 비전인 'Global Leading Nuclear Energy Partne' 체계 하에서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핵연료 공급은 물론이고, 글로벌 핵연료 전문 기업으로서의 노정을 밀도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유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글로벌 KNF를 향한 30년 대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16년 한 해는 본격적인 과업 시작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히 출발선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



경수로 핵연료집합체

보고 우리가 달성해야 할 과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희망찬 새해 아침을 열며 올해를 뉴 비전 달성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KNF의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첫째, KNF의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원자력계는 원자력의 안전성 강화와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날로 엄격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국내 기준에 따라 핵연료를 설계하고 제조했던 우리 회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 하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여러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핵연료의 설계, 품질, 제조 등 모든 분야에서 절차와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고 국제 기준을 리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핵연료 전문 회사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국내 및 UAE 원전 핵연료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둘째, 국내 및 UAE 원전 핵연료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내 원전의 증가와 정상적인 운전에 따라 핵연료 설계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납기 준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핵연료의 공급이 고객에 대한 우리 회사의 임무인 만큼 정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가 1989년 핵연료 생산을 개시하여 국내 공급을 시작한 이래 올해부터는 UAE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핵연료 완제품 수출의 원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핵연료 수출은 우리 회사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일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역사에도 길이 남을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설계 기술 전수는 물론 핵연료 제조에서 운송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해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해외 수출 시에도 이를 지침서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셋째, 주인 의식과 하나된 힘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 갑시다.

얼마 전에 터널 입구에 ‘하나된 힘’이라는 네온 간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강한 기업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주인 의식과 하나된 힘에서 비롯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사 발전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인의식이라고 할 것이며, 강한 기업 문화는 회사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는 1,100여 명에 이르는 커다란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구성된 만큼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론이 결정되면 이를 하나된 힘, 정론으로 만들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할 때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며 조직의 목표가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공기업에 다니는 공인인 만큼 청렴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하여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직원 모두가 홍보맨이 되어 우리 회사의 막중한 역할과 핵연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브라질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저서 「연금술사」에서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 희망의 목표를 향해 그 힘찬 행해를 시작합니다. 그 여정에서 기쁨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고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가 붉은 원숭이의 해이고, 원숭이가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인 만큼, 원숭이의 재치와 기지로 매사 슬기롭게 헤쳐나가기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